

# 국내 부동산관련 대출 1천700조원 육박

### 가계 1천조 넘어...기업 부동산대출 증가속도 빨라 한은 “저금리에 입주·분양물량도 많아 증가요인”

국내 부동산관련 대출 규모가 1천700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계에 대한 대출 잔액은 1천조원을 넘어섰고,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은 가계의 3배를 웃돌았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분양물량이 상당한 데다 금리도 떨어진 만큼 대출 잔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의 ‘최근 부동산관련 대출 동향 및 평가’를 보면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동산관련 대출 규모는 3월 말 기준 1천688조원(잠정치)이다. 가계의 부동산대출 잔액은 1천2조 원이며 기업부문에 대한 대출은 667조 원이다. 부동산관련 대출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부

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이 포함된다. 대출 증가세는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경제 규모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7.7% 불어나는 등 2015년 말 증가율 13.2%보다 크게 둔화했다. 다만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친 만큼 GDP 성장세보다는 더 빨리 증가했다. 차입 주체별로 보면 가계보다 기업의 부동산대출 증가세가 컸다. 3월 말 가계의 부동산대출 잔액은 전

년 동기 대비 4.3%, 기업은 13.9% 증가했다. 기업부문의 부동산 임대업종의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가계대출 규제에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려 하면서 붙어났다. 이에 전체 부동산대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말 33.9%에서 올해 3월 말 40.0%로 상승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나눠 보면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부문 대출이 작년 3월 말보다 9.5% 늘어났다.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이 높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가계에 비해 기업의 부동산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분양물량은 부동산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연체율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제조업 고용부진의 원인과 영향’ 부분을 보면, 제조업 일자리 문제는 임시일용직에 집중됐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제조업 고용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방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인력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제조 중소기업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3배나 높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축소한다면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후성기자



광주상인회,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광주지역 27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회장으로 구성된 광주상인연합회원들이 8일 오후 서구 양동시장 입구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선포식’을 열고 ‘침략만행 정당화하는 이베구탄, 일본 상품 적극 불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기자

## 상반기 신설법인 5만3천901개 ‘역대 최고’

### 전년동기비 2.1%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5만3천901개로 집계됐다고 8일 신설법인 동향을 통해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기록이다. 그러나 6월에 신설된 법인은 3천558개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상반기 신설법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만1천369개(21.1%), 제조업 9천851개(18.3%), 부동산업 6천772개(12.6%), 건설업 5천533개(10.3%) 순으로 많았다. 창업주 연령별로는 40대 1만8천587

개(34.5%), 50대 1만4천159개(26.3%), 30대 1만1천301개(21.0%) 순으로 법인을 많이 설립했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 수가 1만4천1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고, 남성 신설법인 수는 3만9천890개로 1.0% 증가했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8% 포인트 높아진 26.0%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1천374개, 부산 283개, 인천 237개, 대전 79개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기부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창업에 대한 인식과 기반 환경이 개선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폭염대비 쿨 스카프 후원

광주은행은 지난 6일 광주 북구청에서 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과 이상배 광주 북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위기 가구를 위한 쿨 스카프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대비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쿨 스카프 2천개를 준비했으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북구지역 폭염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은성기자

## 60대 초반도 LH에 집 팔면 매월 연금 받는다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26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도 가능 연령층을 낮춰 26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할 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팔고 매각 대금을 달마다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으로, 작년 말 시범 사업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LH는 사들인 집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수선·증축)한 뒤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집을 판 사람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재건축·리모델링을 거친 기존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본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당시보다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됐다. 신청 대상을 늘려 더 많은 사람에게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2

음달 27일까지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LH 각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해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35억원 규모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

### 중기중앙회, 오는 12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2일까지 현지시장조사·현지과건·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공동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35억 규모의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주관단체는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등 단체와 민간해외마케팅 전문기업(해외전시전문기업·해외진출컨설팅기업·전문무역사사 등)을 말한다. 이번 주관단체 모집 공고는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등 수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추경예산 배정에 따라 실시된다. 따라서 수출 수요가 많고 진출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집중

선정하기 위해 주관단체별 사업 참여 횟수제한을 완화해 추진된다. 또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진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박미화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단체는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6)로 문의하면 된다. /임후성기자



제주항공, 승무원 맞춤형 수제화 제공

제주항공은 객실승무원들의 편안한 비행과 건강을 위해 맞춤형 수제화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수제화 제공은 오랜 시간 선 채로 비행해야 하는 승무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 발에 맞는 신발을 제공해 피로도를 낮추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제화는 올해 말까지 3D 스캔과 수제화 제작을 마친 후 내년부터 지급된다. /임후성기자

http://www.kukje9.co.kr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